철학적 문제로서의 연대*

최 성 환

주제분류 사회·정치철학, 문화철학

주 요 어 연대, 개인주의, 개인화, 공동체, 연대주의

요 약 문

이 연구의 목적은 연대라는 표현과 연관된 오늘날의 상황(연대의 과잉과 연대의 결핍)을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 사회를 위한 연대의 형식을 전망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학적 방법과 같은 경험적 접근과는 달리 인간 본성에 기초한 연대의 실행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대가 인간의 근본적 상황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라면 그것은 철학의 본질적인 주제이다. 셸러(M. Scheler)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존투쟁의 경향과 연대의식이 함께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대의식이 우선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본성과 연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실천 또한 그러한 연대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다머(H.-G. Gadamer)의 지적처럼 인간은 '공동성'(Gemeinsamkeit)에 근거하여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동과 더불어 야기되는 공동체의 해체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요구하며,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연대 형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원화, 미분화, 중층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포괄적인 연대형식을 제시하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을 드러낼 따름이다. 따라서 차이와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으면서도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가능한 연대의 형식은 더 이상 전통적인 형식에서 구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시대, 다문화와 다원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여야 하며, 획일적인 통일이나 융합이 아니라 공생과 병존이 가능한 연대의 형식이 요청된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교수연구년)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들어가는 말: 연대의'과잉'과 연대의'결핍'

정치적 구호나 단체의 이름으로 '연대'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가장 흔한 표현 중에 하나이다. 촐(R. Zoll)의 분석처럼 연대는 정치적 결사부터 생활세계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된 현대의 대표적인 수사(修辭, rhetoric) 중의 하나이다.[1]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연대적인가하고 묻게 되면 우리는 쉽게 긍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전적으로 '반(反)연대적인가'라고 묻게 되면 이 또한 일방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 '연대의 인플레'속에서 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연대적 실천 때문이 아니라 연대라는 표현의 남용에 기인하는 특이한 상황의 산물이다. 따라서 연대의 다양한 층위, 용법 그리고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식화하고 연대실천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대에 대한 물음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연대의 필요성이 보편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과 연관된 실질적인 요청에 따라 항상 새롭게 고찰되어왔음을 말해준다. 즉 연대는 인간의 근본적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학적 상수'(eine anthropologische Konstante)이며, 그런 의미에서 연대는 인간의 근본상황을 드러내는 철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가 '사회학적' 사실에 대한 기술(記述)을 넘어 인간 삶에 당위적인 규범적 요청으로 제기될 때 연대의 물음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런 물음은 연대의 진정한 조건에 관한 논의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적 기원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대라는 표상은 자칫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1) 라이너 촐,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최성환 옮김), 한울출판사, 2008, 30쪽 참조.

www.kci.go.kr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추상적인 형식에 그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도르노(Th. W. Adorno)의 지적처럼 심지어 "추상적인 유토피아는 사회의 가장 사악한 경향과 너무나 쉽게 제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 이런 배경에서 이 논문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연대형식에 대한 전망을 위하여 연대의 개념사와 유형, 그리고 연대의 인간학이라는 주제로 연대의 철학적 토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인간본성과 연대의 상호관계를 셸러(M. Scheler)의 관점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세계화, 다문화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의 상황과 연관해서 연대 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대의 현주소와 시대적·사회적 과제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그 지향점은 중요한 사회·정치철학의 주제를 형성하여 왔다.[3] 물론 실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연대의 논의는 주로 사회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세기의 전환점마다

2) 테오도로 아도르노, 『미나마 모랄리아』(김유동 옮김), 도서출판 길, 2005, 141쪽.

3) 나종석, 『차이와 연대-현대 세계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 도서출판 길, 2007, 13쪽 참조. 나종석은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제기되는 가장 큰 물음 중의 하나가 '연대 문제'이며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양극단의 분열과 대립의 경향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구 근대의 위기에 대해서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이 제시하는 치유책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양극단을 화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과 연대적인 원리에 대한 강조이다. 사람들 사이의 죽음을 건 인정투쟁이 인간의 보편적 자유의식의 심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는 인간 삶의 복잡성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헤겔은 진정한 통합과 연대는 사회의 건전한 분화 및 다양성의 성립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서로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분화는 참다운 통합과 연대의 조건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하고 의미있는 개성적인 삶의 분출은 타자와의 협력과 연대라는 원칙과 결합할 때 존립 가능할 뿐 아니라, 나아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 속에서 비로소 그 참다운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는 통찰이 필요함을 헤겔은 역설한다."

등장하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연대는 단순히 사회학의 주제가 아니라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주제로서 '연대'의 문제는 근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공동사회가 근대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전근대적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 내지는 상실이 커다란 우려의 대상이 된다.[4] 그러나 20세기 말에 가까워 오면서 사회적 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다시금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의 상황과 유사하게 20세기 말의 학자들은 근대 사회가 후기근대 (혹은 탈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연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근대성의 자기 확신의 근거들 즉 근대 산업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안정에 기여했던 '위계적인 조직', '강력한 제도', '근대적 이념' 등이 이제 용도 폐기되거나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사회적 결속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중요한 이론적 · 실천적 과제로 다시 부각하게 되는 것이다.[5]

현대 사회와 연관해서 제기되는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6] 우리가 이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것은 기존의 공동체 형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의 주도적 공동체 형식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개인주의,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 형식이 지역공동체, 취미 공동체 혹은 인터넷 동호회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4) 강수택, 『시민연대 사회』, 아르케, 2007, 21쪽 아래.

5) 같은 책, 22쪽 아래.

6)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참조

7) 테오도로 아도르노, 위의 책, 201쪽. 아도르노는 개인화의 위험을 다음과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의 절대화는, 사회 관계의 보편적 매개(...)로부터 최고의 강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직접적 지배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개인 안에 있는 모든 매개자들을 이렇게 해체함으로서 (...) 주체는 빈곤해지고 조잡해져 사회의 단순한 객체로 퇴화하게 된다. 헤겔적 의미에서 추상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개인은 스스로를 지양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벌거벗은 이해밖에는 알자 못하는 모래알 같은 개인들은 조직과 테러가 그들을 덮치자마자 항복하는 사람들이다."

www.kci.go.kr

는 열정에 의해 강하게 결속되었으나 지속되기 어려우며 윤리적 요소를 결핍한 “카니발(축제) 공동체들”, “짐 보관소로서의 공동체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현대 사회는 자신의 연대 형식을 구현(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8] 이른바 전통적인 형식은 분명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탈근대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게 아직 ‘주도적인’ 연대형식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 혹은 다문화(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반적인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동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와해되고 계층, 인종, 민족, 문화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 혹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의 ‘원심력’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구심력’에 의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분산된 이해관계’라는 의미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민족 간의 충돌과 종교의 갈등 등은 여전히 이러한 세계구축이 요원한 것임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오래된’ 연대형식의 문제점이 규명되고 새로운 사회적·시대적 환경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연대형식의 창출(제시)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왈쩌(M. Walzer)의 표현대로 “공존의 형식이 오늘날 보다 더 광범위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이질적인 것의 직접적인 대면이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게 경험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9]

3. 연대의 개념(사)과 연대의 유형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연대의 형식들은 연대 개념의 정의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대 개념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지속적인 의미의 확장’과 ‘실제적 적용’을 경험하여 왔다.[10] 연대보증

8)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이일수 옮김), 도서출판 강, 2009, 316쪽 아래.
9) 마이클 왈쩌, 『관용에 대하여』(송재우 옮김), 미토, 2004, 20쪽 아래.
10) 라이너 촐, 위의 책, 27쪽 참조.

(Solidarhaftung)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에서 유래하는 연대 개념은 오늘날 다양한 의미층위를 가지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11] 연대는 때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발되는 구호로, 때로는 절실한 실존적 요청 그리고 현대 시민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근본적인 의무로서 제시되어져 왔다. 연대 개념의 다양한 변천사를 다루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이 연구는 오히려 연대 개념이 다양한 변용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 근본적인 요청을 담아내고 있다는 테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연대는 각각의 시대적·사회적 환경과 변화의 요구를 나타내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회적 형식이다. 이런 배경에서 연대 개념은 크게 ‘본질 규정으로서의 연대’와 ‘사회적 관계규정으로서의 연대’로 구분할 수 있다. ‘본질 규정’이란 연대가 인간 행위의 근원적 요소라는 의미이며, ‘관계 규정’은 연대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대자’ 혹은 ‘상대자’를 설정하고 그에 대항(혹은 방어)하는 인간행위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12] 또한 현대에서는 연대가 적

11) 같은 책, 31쪽 아래. 공동체의 책임(obligatio in solidum)(공통의 의무, 보증)은 로마법의 전문 용어(Terminus technicus des römischen Rechts)로서 프랑스 법에서 연대(solidarité)로 바뀌지만 원래의 법적인 의미를 유지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저술인 디드로(Denis Diderot)와 달랑베르(Jean Le Rond d’Alembert)의 『백과전서』는 연대(solidarité)를 “여러 채무자가 그들이 빌렸거나 빚진 액수를 되돌려줄 각오가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어떤 의무의 성질”이라고 설명한다고 있다. 이처럼 연대보증이라는 채권법적 의미에서 연대 개념은 1696년 『프랑스 학술원 사전』(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에도 나타난다.
12) 오토프리트 회페, 『정의.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박종대 옮김), EJB, 2004, 143쪽 아래. 회페는 ‘공동체의 책임’을 뜻하는 연대성이 18세기 말에 이르러 법적 의미를 탈피하여 광범위한 의미의 확장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후 연대성은 상호 책임이나 상호 의무를 의미하며, 이때 의무는 위험과 절박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형제자매의 관계에서처럼 자발적이지 않게, 다른 한편으로는 탐험대의 구성원처럼 자유로운 선택이나 자연 재해 같은 우연한 운명에 기초하여 결집된 집단들 안에서 성립한다. 회페는 기본적으로 “연대적 공동체들은 위급 공동체이자 위험 공동체”이지만 연대성이 모두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의에 근거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순전히 혼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 사랑의 계명이다. 이와는 반대로 연대성은 타

www.kci.go.kr

대자에 대한 공동의 대처라는 입장보다는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연대 개념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연대뿐 만 아니라 상황적 요청으로서의 연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대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또한 협의의 연대 개념과 광의의 연대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정식화될 수 있다. 전자가 동등함(Gleichheit)에 기초 위에서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 즉 공동체성(Gemeinschaftlichkeit)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면[13], 후자는 동등한 정체성집단과 타자 모두를 포괄하는 인간적인 "삶의 근본 특징(Charakteristikum)"으로서의 연대를 의미한다. 협의의 연대 개념은 주로 '집단연계적인 해석'(gruppenbezogene Deutung)에 의해 제시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조합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대 개념은 거칠게 표현하면 사회학의 중요한 주제이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결집에서 비롯되는 '방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피어칸트(A. Vierkandt)는 협의의 연대 개념을 첫째, '다수가 통일체로 취하는 상태', 둘째, '실천적인 의미의 태도', 셋째, '방해,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한 방어'의 태도, 넷째, '내적인 소속감(Verbundenheit)'에 근거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념'이라는 요소로 분석한다.[14] 이에 반해 광의의 연대 개념은 사회학적 사실을 넘어서 인간 본성과 연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부르주아(L. Bourgeois)와 셸러(M. Scheler)와 같은 연대주의(Solidarismus)[15]의 대

인에 대한 의무와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양자택일 해당되지 않고, 운명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요청된다." 회페는 운명의 종류에 따라 연대성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1)사회보장과 같은 '협동적 연대성', 2)경쟁적 집단에 대항하는 '적대적 연대성' 그리고 3)예견할 수 없는 집단적 불행의 극복을 위한 '우연적 연대성'이 그것이다.

13) 라이너 촐, 위의 책, 27쪽 아래 참조

14) A. Vierkandt, "Soidarität", in: (Hg. W. Bemsdorf) *Wörterbuch der Soziologie*, Bd., 3, FfM, 704쪽.

15) 라이너 촐, 위의 책, 103쪽 참조. 연대주의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화해시키려는 높은 이상을 내세웠던 운동으로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프랑스의 사회철학과 정치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가톨릭의 사회이론

표자들에 의해 표방된다.[16] 여기서는 '적대관계'를 거부하는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대를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으로서 간주하려고 한다. 인간의 보편적 특징을 나타내는 이 개념은 사회학을 넘어 철학의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며, 방어의 성격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구성'과 '통합'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출(R. Zoll)에 따르면 연대 개념은 1) 형제애의 시기, 2) 기계적 연대의 시기, 3) 유기적 연대의 시기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형제애는 수공업직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대 형식이며, 기계적 연대는 노동자 계급이 확고히 정립됨과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다양화, 다원화, 미분화 등과 같은 경향은 더 이상 동등한 신분을 토대로 하는 기계적 연대가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이 기계적 연대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그러한 결집을 표방하는 집단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 다만 기계적 연대가 전체 사회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계적 연대의 한계가 드러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분화를 담아낼 수 있는 유기적 연대의 형식이 등장하게 된다. "유기적인 연대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여성과, 소수인종, 동성애자, 장애인 등 모든 부류의 소수자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논의에서 표현되어진다. 그 반응이 항상 필요나 객관적인 위급상태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류의 연대적 행위는 그 사이에 연대의 새로운 시기로 고찰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 풍부해졌고, 확산되어졌다."[17]

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6) 사회학의 원조인 콩트(Auguste Comte)는 『실증주의 정신에 관한 강론』(Discours sur l'Esprit positif)(1844)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가장 현대적인 연대 개념을 선취하고 있다: "새로운 철학은 여러 상이한 관점을 고려하여 실천과 이론 모든 면에서 항상 모든 타자에 대한 각 개인의 결속을 강조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 친밀한 감정이 모든 시간과 장소로 확장되어 자기도 모르게 신뢰하게 된다"(라이너 촐, 위의 책, 29쪽에서 재인용).

17) 라이너 촐, 위의 책, 52쪽.

www.kci.go.kr

연대의 유형과 시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근대 사회 이후 연대의 요구는 항상 제기되어 왔으며, 단지 그 형식만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과 연관된 연대의 기초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4. 연대의 인간학

1) 인간 본성과 연대의 기초

일상의 세계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이 관심은 그 사건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관심에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이래로 인간의 사회성은 항상 전제되거나 충족되어야 할 인간 삶의 근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사회성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강제될 수도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성이 사회의 분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애피아(K. A. Appiah)는 인간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의무, 즉 혈족의 유대나 심지어 더 형식적인 시민적 유대조차 넘어서는 더욱 확장된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뿐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병존하며, 이러한 두 가지 이상들, 즉 보편적 관심과 정당한 차이에 대한 존중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18] 이렇듯 연대의 기초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서로 연대적인 개인들의 상태의 동등함인가, 단체 또는 공동체에 소속된 것의 동일함인가 아니면 사회, 국가의 소속인가? 단체의 경계는 매우 좁게 아니면 매우 넓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피

18) 콰메 앤터니 애피아,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실천철학연구회 옮김), 바이북스, 2008, 22쪽.

어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내적인 결합'의 감정인가 아니면 콩트가 말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상호 의존에 대한 의식인가?"[19]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대 개념의 역사적 전개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혼재해 있는데, 그 하나는 집단 혹은 관심(이해관계)의 '동등함 혹은 유사성'을 주장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동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결합'을 옹호하는 부류이다. 전자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인간 삶의 일반적인 경향을 규정하는 것 혹은 이기적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는 그것이 인간 본성의 한 측면 즉 이타심의 발로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의 생활방식이 일반화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 입장 중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20] 따라서 연대가 각각의 시대적·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의해 그 형식을 변화,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현대 사회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지구화, 다문화사회, 문명의 충돌 등 다양한 화두들과 문제들이 등장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동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연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빌트(A. Wildt)가 말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향유하거나 또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똑같은 기회들, 권리들, 목표들이 실현되도록, 우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다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21]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연대 이념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책임의 전개와 수용"[22]이라고 볼 수 있다.

19) 라이너 촐, 위의 책, 30쪽.

20) 오토프리트 회페, 위의 책, 143쪽 아래. "실제로 연대성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정의와 자발적인 인간사랑 사이에서 규범적인 중간 위치를 차지한다."

21) A. Wildt, "Solidarität", in: *Brockhaus Enzyklopädie*, 1996, 372쪽.

22) P. Spicker, "Equality versus Solidarity",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1992, 66쪽 아래(라이너 촐, 위의 책, 31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바람직하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외적인 요구로 주어진다면 인간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인간의 실천적 행위가 본래부터 연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가다머는 실천철학과 실천이성에 대한 논의에서 실천과 연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실천이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실천은 연대 속에서 운신하고 행위하는 것이다(Praxis ist Sich-Verhalten und Handeln in Solidarität). 그런데 연대는 모든 사회적 이성의 결정적인 조건이자 토대다."[23] 인간의 실천적 행위가 연대에 기초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활동의 올바른 목적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다머는 연대를 "저 자명한 공동성(Gemeinsamkeit), 윤리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삶의 영역에서 결정을 내라는 저 자명한 공동성, 누구나가 다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공통적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는 것"[24]으로 파악한다. 연대는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설정된 "진정한 공동성"[25]이며, 그것을 지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순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인간은 지평융합을 통해 형성된 공동성을 기반하여 행위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공동성의 창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연대는 개인의 '실천이성을 사회적 이성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드러난다.[27]

2) 개인, 공동체 그리고 연대

공동체의 삶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 사이의 긴장은 항상 다

23) H.-G. Gadamer, "Was ist Praxis?", in: *Gesammelte Werke*, Bd. 4, 228쪽.
24) H.-G. Gadamer, *Das Erbe Europas. Beiträge*, FfM 1995, 124쪽.
25) H.-G. Gadamer, "Was ist Praxis?", 224쪽.
26) H.-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4.Aufl. 1975, 18쪽. 가다머는 비코의 공통감각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의지에 방향을 지시해주는 것은 이성의 추상적 보편성이 아니라 한 집단, 한 민족, 한 국가 또는 인류 전체의 공동성(Gemeinsamkeit)을 나타내는 구체적 보편성"이라고 말한다.
27) 백승영, 「가다머의 실천철학 기획과 해석학적 계몽의 의미: 프로네시스, 필리아, 연대성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16집(2005), 한국해석학회, 84쪽 아래.

루어지는 고전적이며 동시에 진부한 주제이다. 시민결합의 원리로서 우정과 사랑이 우선시될 때 '공동체주의'가, 동의와 효용이 우선시될 때 '자유주의'가 부각된다. 전자는 '시민적 덕과 공공선의 확립'을, 후자는 '시민적 자유의 확립과 물질적 번영'을 목적하게 된다.[28] 또 다른 관점에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는 연대(유대성)와 정체성의 관계문제로 정식화될 수 있다. 이진우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유'만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9] 그러나 여기서 개인의 기여는 당연히 자발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배 권력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성'으로서의 국가 형성은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 국가는 개인적 삶의 풍요로움을 기초로 하는 까닭에 국가의 통일성은 근본적으로 '다원적 통일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족은 크면 클수록 바람직 하지만, 통일성은 작으면 작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한다."[30]

그러나 20세기 말에 벌어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최근 들어와서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철학이 현실로 눈을 돌림으로써 이루어진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대변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두 시선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결코 독립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보완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동체 추구의 경험적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28) 김용민, 「국가와 시민」, 『사회변혁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9, 124쪽. 고전적인 덕은 인간의 탁월한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고귀하고 숭고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법치주의를 통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근대 자유주의국가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는 시민의 덕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덕의 상실'은 근대 자유주의의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9) 이진우,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21세기 정치문화에 관한 철학적 성찰』, 한길사, 2000, 181쪽.
30) 같은 책, 193쪽 아래.

www.kci.go.kr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결속의 딜레마는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31] 즉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 사이의 우선권에 대한 논의는 "실재의 문제"이기보다는 "관념적이며 이론적인 문제"인 것이다."[32] 이것은 공동체와 개인사이의 갈등 혹은 딜레마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가치체계와 상황적 규범에 의한 다양한 절충"에 의해 해소되거나 문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3] 그러나 이론적 차원이든 실천적인 차원이든 중요한 것은 융합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상호작용과 사회화의 중요성'[34]이 부각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요소, 기원, 지향과 같은 특징으로 규정되는 현대사회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 이념은 비현실적인 당위처럼 여겨진다. 또한 인간이 결코 사회와 역사를 급진적으로 이탈하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분명하다. 전통의 영향이 비록 미약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는 전통과 연관된 문화적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의 해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가정은 인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인간은 다양한 상관적인 인물들(Bezungspersonen)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연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35] "물론 혹자는 현대사회가 이러한 종류의 우애관계를 장려하기보다는 계산적인 이해관계만을 조장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현대의 국가 역시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 정도의 유대성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한다.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현실적 의미를 획득하는 개인의 삶은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유대성의 관계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국가의 공동선을 유지하고 촉

31)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결속사이에서』, 아카넷, 2001, 261~265쪽.
32) 같은 책, 266쪽.
33) 같은 책, 267쪽.
34) 같은 책, 273쪽.
35) 배르나르 알리 레비, 『인간의 얼굴을 향한 야만』(박정자 옮김), 프로네시스, 2008, 59쪽. 그러나 베르나르 앙리 레비와 같은 사람은 루소의 재해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인간 공동체의 형성에 매우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진시키는 실질적 토대이다(...)."[36]

5. Exkurs: M. 셸러와 연대의 원칙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유명한 셸러는 인간 본성과 연관해서 연대를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모든 인격 영역(Personenreiche) 전체의 도덕적 치유를 위한 각 인격의 근원적인 공동책임에 관한 이론(연대원칙)"[37]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연대주의'의 대변자로 평가되기도 한다.[38] 셸러에 따르면 "공동체로의 지향"이 개별 인격(Einzelperson)에 "본질적인 작용 그 자체의 본성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개별 인격과, 총체인격(Gesamtperson)으로서의 공동체는 "동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39]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은 동시에 '공동활동자',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책임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40]

니체에 기대어 셸러는 "사랑, 동정, 헌신 경향, 희생 노력 등이 성장, 발전, 힘에로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일체의 생명에 고유한 것"[41]이라고 고찰한다. 그는 "모든 생명체에게 근원적으로 (...) 자연적인 동정심"이 고유한 것이며, 단지 "일체의 생명에 근원적으로 고유한 자연적 동정심의 제거와 탈락"[42]만이 이기주의로 이끈다고 가정한다.[43] 셸러

36) 이진우, 위의 책, 194쪽 참조.
37) 막스 셸러, 『윤리학에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을상 외 옮김), 서광사, 1998, 22쪽 아래(기본적으로 이 번역서를 기초로 삼았지만 몇몇 표현은 원전을 참조하여 고쳐서 사용하였다)
38) 라이너 촐, 위의 책, 201쪽.
39) 막스 셸러, 위의 책, 602쪽.
40) 이양호, 『막스 셸러의 철학』, 이문출판사, 1997, 163쪽.
41) 막스 셸러, 위의 책, 340쪽 아래.
42) 같은 책, 341쪽
43)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그러나 셸러는 니체가 생명이 무엇보다도 '생존의 보존'이라는 오류를 확실히 근본적으로 극복했지만, 생명은 오로지 '자기 보존' 또는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자기 성장'으로 보는 또 하나의 오류는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니체가 그릇된 일면적인 생물학과 심리학의 모든 오류들

www.kci.go.kr

는 다윈(C. Darwin)이 "인간 상호간의 투쟁이나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투쟁의 관점에서 유기적 자연의 전체 가운데 상호 연대와 부조, 헌신과 희생으로의 경향과, 생존 유지의 이기주의에 근거한 투쟁 원리 간에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를" 제대로 고찰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44] 셸러에 따르면 생존을 위한 투쟁과 경쟁 또는 상호적인 지원과 연대라는 생명체의 두 가지 경향 중에서 후자는 더 심오한 것이며, 전자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진" 것이다. 그는 "식물"과 "동물의 현존"에 있어서는 "투쟁이 철저히 연대 원칙에 종속되어 있다"고 규정한다. 셸러는 "생명체 전체의 모습이 내적으로는 연대와 통일이고 외적으로는 투쟁과 분열"[45]로 구조화되어있지만 연대 원리가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셸러는 "동정심"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사회적인 통일체"(sozialer Wesenseinehiten)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고, 그에 상응하게 연대의 단계도 배열된다. 그것은 군집, 삶의 공동체, 이익사회 그리고 "자립적·정신적·개성적 개별 인격체의 통일"이다. 먼저, "군집(Masse)이라는 사회적 통일체에서는 어떠한 연대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체험으로서 개별적 개체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실존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다른 개체와 연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집의 단계에서는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체험 수행의 작용 속에서 각자의 개체적 자아 존재가 함께 체험되거나 하물며 타자의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화되는 그러한 이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이다."[46]

둘째, (퇴니스의 구분에 따르면) 자연적 통일로서 공동 사회(Gemeinschaft)를 의미하는 삶의 공동체(Lebensgemeinschaft) 즉 "초개인적인 생명 통일체와 육체 통일체"는 이미 "대체가능한 연대"를 실행한다. "이러한 연대는 (...) 개인의 체험이 물론 그 자체로서 주어지지만 체험의 흐름과 내실

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44) 같은 책, 344쪽.

45) 같은 책, 같은 곳.

46) 같은 책, 609쪽 아래.

에 따라 총체적 체험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변화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생겨난다."[47] 이 공동체에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는 존재하지만 사회 내에서 공동체험에 선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체험들은 삶의 공동체가 형성하는 전체적 공동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적이다.[48] "이러한 '연대'는 모든 자기 책임성이 —그것이 체험되는 한— 공동체 전체의 의욕, 행위, 작업에 대한 공동 책임성의 체험 위에서 비로소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연유로 개인은 공동체적 삶의 과제가 지닌 상이한 영역에 대응하고(그것의 변종으로는 카스트, 신분, 지위, 관직, 직업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개별자에 의해 법칙에 따라 원리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한다.[49]

셋째, "더 성숙하고 자의식을 가진" 개별인격체의 "인위적인 통일체"로서의 이익사회는 "어떠한 근원적인 동반 책임도" 발전시키지 않으며, 그 사회는 단편적인 자기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윤리적·법률적으로 어떠한 근원적 공동 책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타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면적인 자기 책임에 근거하고, 모든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은 특정한 의무 부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유로운 개별적 적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대체가능한 것도,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참된 연대(즉 '만일을 위한 한사람'과 '한 사람을 위한 만인'이라는 어떤 형식)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인과 개인으로부터 형성되는 '계급'의 이해관심의 평등 또는 불평등만이 존재한다."[50]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는 '신뢰' 형성 여부에 의해 구별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러한 신뢰 혹은 불신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익사회에서는 '협정', '관례' 또는 '계약' 등에 의해서 관계망이 형성되어진다. 이것은 '근거 없

47) 같은 책, 611쪽.

48) 맨프레드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금교영 옮김), 이문출판사, 1995, 152쪽 참조.

49) 막스 셸러, 위의 책, 611쪽.

50) 같은 책, 612쪽.

www.kci.go.kr

는 신뢰'가 공동사회에서 근본적인 태도인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근거 없는 원초적인 불신'이 이익사회에서의 근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익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어떤 것을 하려면 다수결 원리에 근거한 픽션이나 권력에 의존해야만 한다.[51]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일성의 최상의 형식은" "자립적 · 정신적 · 개성적인 전체 인격"에서의 "자립적 · 정신적 · 개성적인 개별 인격체의 통일성"이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삶의 공동체(공동 사회)에서는 모든 책임의 담지자가 공동체의 실재성이고, 개인은 다만 공동체에 대해서만 공동 책임을 지는 반면, 이 통일성에서는 각 개인과 총체 인격이 "자기 책임을 지는(즉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각 개인은 총체 인격(그리고 총체 인격 '속'에 있는 각 개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마찬가지로 총체 인격도 그 구성원 각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개별 인격과 총체 인격사이에는 상호적인 공동책임성이 성립되는 동시에 양자의 자기 책임성도 부과되는 것이다. 셸러는 이 통일에서 기독교 사상의 정수를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통일이 참된 원시 기독교 공동체 사상의 핵심과 혁신을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서 비로소 역사적으로 발견되기에 이른 통일이다." 그에 따르면 이 공동체 사상이 다른 종교적 입장((고대 그리스적 집단설과 유대교적 '민족' 사상)과는 달리 "개체의 (창조론적으로 파악된) '영혼'과 인격의 존재 및 파괴할 수 없는 자기 가치를 (...) 그리스도교단(corpus christianum)에서 만인 구제의 연대라는 에토스의 사랑 이념에 기초된 사상으로 합일시켜 주는 유일한 양식이다."[52] 여기에서 "모든 단순히 타산 사회적이고 모든 도덕적 연대성도 부정하는" 이익시회의 에토스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체에서 비로소 연대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대 원칙은 셸러에게 있어서 "유한하고 도덕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우주의 근본 강령"(Grundartikel eines Kosmos endlicher sittlicher Personen)[53]이다.

51) 같은 책, 613쪽.
52) 같은 책, 617쪽.

셸러의 연대주의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이념적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가에 따라서 상이하다. 노동사회학자인 촐은 비록 셸러가 칸트의 "무한한 상대주의"와 "비생산적이고 공허한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제시한 사상에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유토피아 형식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계급없는 평등한 사회'가 셸러의 표현에는 바로 '연대적인 사회'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다.[54] 그러나 강수택은 갈등론적 연대관과 통합론적 연대관[55]에는 사회적 연대를 기존 사회체계의 유지 혹은 변화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사회중심적 특성'이 나타나는 반면, 셸러는 연대를 인격적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관계로 파악하는 '인격론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 논의의 폭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56] 셸러는 사회현상이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 개념에 기초한 인격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57]

6. 세계화, 다문화 사회 그리고 연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 사회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체성 집단 즉 동등한 신분에서 이루어지는 연대가 아니라 차이에 근거하는 타자와의

53) 같은 책, 618쪽.
54) 라이너 촐, 위의 책, 202쪽 아래 참조.
55) 강수택, 위의 책, 176쪽 참조. 전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주의로 무장된 노동운동 진영에서 지배적인 관점이며 후자는 뒤르껭, 파슨즈 등에 의해 제시되는 관점이다.
56) 같은 책, 같은 곳.
57) 막스 셸러, 위의 책, 442쪽 아래 참조. 셸러에 따르면 인격은 결코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진 사물 또는 실체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러한 사물 또는 실체 아래 있는 이성의 "능력" 또는 "힘"으로 생각되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 셸러는 인격을 직접적으로 함께 체험되는 체험(Er-leben)의 통일로 이해하며, 단지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의 배후 및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될 뿐인 사물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www.kci.go.kr

일반적인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기원뿐만 아니라 상이한 지향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시대적·사회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연대의 범위를 넘어서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후쿠야마(F. Hukuyama)는 정체성 집단의 전형적인 예인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는 사회는 '신뢰가 낮은 사회', 그 반대로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사회는 '신뢰가 높은 사회'로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가족 집단의 유대의 강도와 외부 집단에 대한 신뢰의 강도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사람들 간의 강한 유대는 가족 관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정체성 집단'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안심하지만, 다른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집단(조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나 집단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의 형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58]

타인에 대한 신뢰와 열린 태도와 함께,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연대 형식만이 오늘날 같이 다원화, 다양화, 중층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공통감각'(sensus communis)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배경에서 개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는 것,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공동체들이 폐쇄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종교나 성적 선호도, 피부색, 문화적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평등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은 각각의 소속이 아니라 '공통적인 활동 공간의 기준'에 의거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해할 뿐만

58) F. Fukuyama,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1995, 178쪽 아래 참조(이우관, 「한국 시민 사회의 연고주의와 신뢰」,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권용혁 외), 이학사, 97쪽에서 재인용).

아니라, 동시에 모두 동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의 준수를 필두로 자신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공적 업무의 관리'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기본 사실로 전제하고,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대화와 같은 상호인정의 조치가 필요하다.[59] 이런 관점에서 회페(O. Höffe)가 제시하는, 신념의 변경마저 감내하는, '국가시민적 관용'이라는 구상이 매우 유용해 보인다.[60]

7. 나오는 말: 연대를 위한'복원의 해석학'

위기와 변혁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이며,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결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연대 의식의 내면화에 따른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에 대한 이론적인 담론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연대형식의 모색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연대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는 노력

59)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윤진 옮김), 한울, 136~137쪽. 필자는 앞으로 다문화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는 '시민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당위나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변화된 현실인식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의 형성(Bildung)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0) 오트프리트 회페, 『정의Gerechtigkeit.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박종대 옮김), EJB, 2004, 150쪽. 회페는 관용을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먼저 문명화된 상호교제의 조건이며, 타인의 개성(고유성)을 소중히 여기고 보장하는 데서 성립하는 수동적인 관용이다. 둘째, 타인의 생존권인 자유와 발전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긍정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적극적 관용이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 형성된 신념을 극복하고 '구속력'있는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된 태도인 국가시민적 관용이다. 그에 따르면 연대의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혹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동의 법질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신념들뿐이며, 이것이 것이 바로 다원적 민주주의 성립과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www.kci.go.kr

보다는 이제 쓸모없는 부분들을 보충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래쉬(S. Lash)는 「성찰성과 그것의 분신들: 구조, 미학, 공동체」에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포스트모던적 해체주의의 '의심의 해석학'이 아니라 '복원의 해석학'이라고 역설한다.[61] 비슷한 맥락에서 철학이 비판을 넘어서 실천을 계몽적으로 지도하며, 방향성의 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62] 이제 일방적인 위기담론에서 탈피하여 연대 문제의 보편성과 현재성을 규명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의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계층, 직업등과 같은 동질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연대 즉 기계적 연대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노력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다양한 집단들이 각각의 위상과 의미를 보유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연대는 '유기적 연대'이다. 오늘날 요청되는 연대는 특정한 정체성 집단의 토대위에 형성된 연대가 아니라 인간이해와 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적인 연대'라 할 수 있다.[63]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것처럼 20세기

61) 스콧 래쉬, 「성찰성과 그것의 분실들: 구조, 미학, 공동체」, 『성찰적 근대화』(앤소니 기든스 외)(임현진 외 옮김), 한울, 1998, 210쪽 아래. 래쉬는 "오늘날 해체(주의)가 늘 새로움을 거듭하는 세계에 대한 집요한 도전 속에서 그 해묵은 미학적 성찰만으로는 맑스와 프로이트의 명성을 깎아내리지도 혹은 그들로부터 '떠나오지도' 못하고 단지 더 빠른 주기로 그 (의심의) 대가들이 시작한 행로를 반복할 따름이다"고 비판한다. 그는 어떤 종류의 공동체든, 국민적 혹은 다른 집합적 정체성이든, 즉 '우리'에 요구되는 것은 '의심의 해석학'이 아니라 '복원의 해석학'이라고 단언한다. "그러한 복원의 해석학은 의심의 거장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기초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고, 공동적 세계-내-존재라는 존재론적 기반을 열어 놓으려 할 것이다. (...) 기호표현의 자유유희에 감탄하기 보다는 '우리'의 존재조건, 즉 참으로 존재 그 자체인 공유된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 겸허하게 그 기호표현의 '배후를 살펴볼'것이다."

62) 이삼열, 「민주화와 사회발전의 방향」, 『사회변혁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9, 204쪽.

63) 강용수, 「문화담론과 연대성 」,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35호(2009, 봄/여름), 112쪽. 강용수는 연대 문제를 논의할 때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근거한 도덕적, 규범적 접근방법"과 "문화영역에 대한 기술"에 기초한 '기술(記述)적 접근방법'을 구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법률적

의 야만성은 새로운 지역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의 형태에서 발원되며 민족의 말살, 대량학살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64]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파시즘의 효율적인 연대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기계적 연대가 아니라 '자율', '자기결정'의 토대위에 형성되는 해방적 연대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적 연대이다.[65] 아도르노는 '해방된 사회'는 "획일화한 국가가 아니라 차이들의 화해 속에서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66]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대가 필요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로티가 말한 것처럼 "연대성은 반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낯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굴욕의 특정 세부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창조"[67] 되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유희학문(Entspannungswissenschaft)[68]정도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부질없고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난제인 통합의 문제는 오히려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단지 표면적으로만 봉합될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제도적 해법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결국 '배제의 논리'에 의해 특정한 집단의 결집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69] 오

인 측면을 다룬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문화영역에 대한 기술이 단지 법률적인 측면으로 제한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64) G. Böhme,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Weltweisheit·Lebensform·Wissenschaft,* FfM 1998, 118쪽.

65) 허버트 마르쿠제, 『해방론』, 청하, 1984, 126쪽.

66) 테오도르 아도르노, 위의 책, 141쪽.

67) 리처드 로티,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김동식 외 옮김), 민음사, 1996, 24쪽.

68) W. Frühwald u.a., *Geisteswissenschaften heute*, FfM 1991, 33쪽 아래 참조.

69) 우리나라에서는 투쟁과 갈등의 일상성이 지배했던 7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첨예한 이념적 대치가 지속되어 왔다. 2007년 대선을 계기로 '이념에서 경제로의 전환'이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보 진영의 자성적 평가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로의 전환이 이념적 갈

www.kci.go.kr

히려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성찰적 작용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 소통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언젠가는 '타자와의 연대'가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서 필수적이며 최종적인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무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대학교)

등은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의 '정서'를 모두 덮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영역에서만 해도 '양극화'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의 원천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이후 치러진 2008년의 총선은 지역주의로의 회귀라는 망국적 현상이 재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갈등과 대립의 '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학적이고 철학적 반성을 통하여 인간성의 갈등적 요소와 대화적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통합과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이에 대해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76호(2008년, 봄), 특집: 「사회통합의 문제 참조.

참고문헌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강용수, 「문화담론과 연대성」,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35호, 2009, 봄/여름.

김용민, 「국가와 시민」, 『사회변혁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9.

나종석, 『차이와 연대-현대 세계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 도서출판 길, 2007.

래쉬 스콧, 「성찰성과 그것의 분실들:구조, 미학, 공동체」, 『성찰적 근대화』, 앤소니 기든스 외, 임현진 외 옮김, 한울, 1998.

레비 베르나르 알리, 『인간의 얼굴을 향한 야만』, 박정자 옮김, 프로네시스, 2008.

로티 리처드,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김동식 외 옮김, 민음사, 1996.

마르티니엘로 마르코,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옮김, 한울, 2002.

바우만 지그문트,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도서출판 강, 2009.

백승영, 「가다머의 실천철학 기획과 해석학적 계몽의 의미: 프로네시스, 필리아, 연대성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16집(2005), 한국해석학회.

셸러 막스, 『윤리학에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 이을상 외 옮김, 서광사, 1998.

아도르노 테오도르, 『미나마 모랄리아』, 김유동 옮김, 도서출판 길, 2005.

애피아 콰메 앤터니,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실천철학연구회 옮김, 바이북스, 2008.

왈쩌 마이클, 『관용에 대하여』, 송재우 옮김, 미토, 2004.

이삼열, 「민주화와 사회발전의 방향」, 『사회변혁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9.

이양호, 『막스 셸러의 철학』, 이문출판사, 1997.

이우관, 「한국 시민사회의 연고주의와 신뢰」,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권용혁 외, 이학사, 2006.

www.kci.go.kr

이종영,『욕망에서 연대성으로』, 백의, 1998.
이진우,『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21세기 정치문화에 관한 철학적 성찰』, 한길사, 2000.
촐 라이너,『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출판사, 2008.
프링스 맨프래드,『막스 쉘러 철학의 이해』, 금교영 옮김, 이문출판사, 1995,
황경식,「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사회철학대계』, 2권, 민음사, 1993.
회페 오토프리트,『정의Gerechtigkeit.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박종대 옮김, EJB, 2004.
Bauman, Z., *Commnity: Seeking Safety in an Insecured World*, Cambridge 2001.
Böhme, G.,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Weltweisheit · Lebensform · Wissenschaft*, FfM 1998.
Frühwald u.a., *Geisteswissenschaften heute*, FfM 1991
Gadamer, H.-G., "Was ist Praxis?", in: *Gesammelte Werke*, Bd. 4, Tübingen 1987.
Gadamer, H.-G., Das Erbe Europas. *Beiträge*, FfM 1990.
Vierkandt, A., "Soidarität", in: (Hg. W. Bemsdorf) *Wörterbuch der Soziologie*, Bd., 3, FfM 1972.
Wildt, A., "Solidarität", in: *Brockhaus Enzyklopädie*, 1997.

Solidarity as a philosophical Problem

Sung-Hwan Choi

This paper examines solidarity in the dimension of philosophy and try to find e new form of solidarity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First, following the history of concepts, I explain the several meanings of solidarity in philosophical aspect.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form of solidarity depends on the social-historical circumstance und demands. For the solidity in a modern society, in which individuation und social variation are grown, the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the regular members and non-regular member is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

Second, I analyze the main element of philosophical concept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debate between liberalism und communitarianism a theoretical problem. Because the dilemma seems to be solved in practical dimension.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organic solidarity is the main el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global, multi-cultural, comtemporary society.

Key Words: Solidarity, Individualism, individualization, community, Solidarism

최성환 e-mail: shchoi@cau.ac.kr

투 고 일	2010년 4월 5일
심 사 일	2010년 5월 6일
게재확정	2010년 5월 15일

www.kci.go.kr